

부활한 'T맵 택시', 10% 할인으로 카카오에 맞붙

SKT 'T맵 택시' 서비스 개편

국내 최초 '안심귀가 라이브' 도입 연말까지 월 5회 할인 혜택 제공 'T맵' 기반, 소요시간·금액 측정 10만명 월 사용자 500만명으로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의 '빈틈'을 SK텔레콤이 파고든다. 카카오가 카풀(승차공유)을 두고 택시업계와 갈등을 벌이는 사이 새 서비스를 통해 1위 업체와의 격차를 좁히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현재 10만명 수준인 월간 실사용자 수를 2020년까지 카카오택시와 비슷한 수준인 5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카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지영 SK텔레콤 TTS사업 유닛장(상무)은 5일 서울 을지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T맵 택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준비하고 지난 6월 리뷰된 애플



5일 서울 을지로 삼화타워에서 열린 티맵 택시 주제 'New ICT 포럼'에 참석한 여지영 SK텔레콤 TTS사업유닛장이 티맵 택시 개편의 주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리케이션 서비스를 오픈했다"며 "인공지능(AI) 택시 등 기능이 추가되면 오는 2020년에는 월 사용자 500만명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인 요인으로 연말까지 티맵 택시 10% 할인 혜택(월 5회, 회당 최대 5000원)을 제공한다. 승객들은 티맵 택시 앱으로 택시 호출 후 하차 시 앱결제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택시 승객의 위치를 지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라이브' 기능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택시 탑승 고객은 택시의 현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 이용 택시의 정보 등을 본인이 희망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낼 수 있다. 지난 6월 말 오픈한 안심 귀가 서비스는 전체 고객 중 15%가 쓰고 있다. 대부분 이용객이 20대

여성과 30~40대 남성이다.

티맵 택시는 택시 호출 시 목적지까지의 소요 시간과 예상 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상금액과 소요시간은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의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한다.

택시 기사들을 위한 지원도 한다. 고객의 호출에 응하는 '콜잡이'를 연내 택시 기사 3만명에게 무상 제공한다. 콜잡이는 핸들에 부착하는 형태다. 택시 기사는 스마트폰에 손을 뻗지 않고도 콜잡이의 버튼을 눌러 고객의 호출에 응할 수 있다.

향후 AI 기능을 접목한다. 택시기사에게 실시간으로 택시 수요 밀집 지역 정보를 공유해 기사와 승객의 대기시간을 축소하고 택시기사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SK텔레콤은 이번 티맵 택시 개편으로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2015년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에 진출했지만 카카오 'T택시'의 기세에 맥을 못추고 있었다. 현재 SK텔레콤 티맵 택시의 이용객은 월간 10만명 수준으로, 58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 택시 이용객의 5분의 1 수준도 안된다.

여지영 유닛장은 "최근 모빌리티 시장이 과거와 다르게 2~3년 사이 발전했다. 그대로 있다가는 큰 위기가 올 것으로 생각해 재정비 했다"며 "T맵 택시 담당자 15명과 함께 직접 기사 면허를 취득해 운행하며 파악한 택시 기사들과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혜택과 기능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카풀에 대해서는 "기사들의 생존권과 승객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유휴 택시를 활성화하고 제도적인 보안을 마치면 카풀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카풀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은 셈이다.

이와 함께 카풀 보다는 승차 구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여 상무는 "직접 택시를 운행해 보니 택시 공차율이 30~40%에 달할 정도로 높다"며 "택시를 활성화 시키고 승차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플랫폼을 구현하는 사업자들이 모여 승차 구조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같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 9개월서 4개월로 줄인다

방위사업청 전시 조달 즉응성 기대

방위산업 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사업청은 5일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방산물자 지정과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행정기간을 종래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 전에는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를 지정한 이후 순차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방산물자 지정 시 3개월, 방산업체 지정 시 6개월 등 전체 9개월의 행정기간이 소요됐다.

때문에 전시 조달 즉응성을 높이고자 방위사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조해,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생산능력 확인, 보안 측정 등 예비절차를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소요기간을 5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합성과 같이 연구개발 결과물(시제품)을 군에서 바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달리 연구개발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산물자는 대부분 무기체계가 주를 이루지만, 시장성이 낮은 일부 보안장비와 신체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탄복 및 방탄헬멧 등도 군납물자가 아닌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육·해·공 각 군에서 전력지원물자로 지정하는 군납물자에 대한 지정 규정도 함께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김일동 방산진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소요되는 행정기간 단축을 통해 군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업체는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군과 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불황 뛰어넘은 정유업계... 올 영업이익 8조 '기대'

유가 상승·PX 마진 확대 실적 견인 SK이노베이션 영업이익 8359억원 유가 안정세... 4분기도 선방 전망

국내 정유사들이 올해 3분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유가 상승, PX(피라자일렌) 마진 확대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기록했다. 정유부문에서는 유가가 오르면서 시세 차익을 누렸고 화학부문에서는 PX의 단가, 수요가 모두 늘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과 S-OIL,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대표 정유 4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8조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정유 4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총 7조3869억원이다.

5일 IB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SK이노베이션은 8359억원, S-OIL은 3157억원, 현대오일뱅크 2400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 /뉴시스

오는 8일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는 GS칼텍스도 지난해보다 나아진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B업계에서는 GS칼텍스가 약 162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3분기 선방은 국제 유가 상승 덕분이다. 지난해 3분기 배럴당 50달러를

넘긴 국제유가는 지난해 연말 60달러를 넘어섰다. 선물 거래로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정유사들은 유가가 오를수록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정유 4사 모두 생산하고 있는 PX 또한 이번 3분기에 호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지난 1월 중국이 페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면서 PX 수요가 늘어난 덕분이다.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PX 강제 영향으로 화학사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5억원, 전 분기 대비 1078억원 상승한 345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연간 260만톤의 PX를 생산한다. 또 S-OIL은 185만톤, 현대오일뱅크는 118만톤, GS칼텍스는 135만톤의 PX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한편 오는 4분기에도 정유 4사는 무난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유가가 안정세에 돌아섰고 정제마진이 늘어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PX 가격이 톤당 1300달러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정유 4사는 총 7조386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올해 8조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을 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포드는 美서 엔진정지... 혼다는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포드 130만대... 혼다 70대 리콜

포드가 미국에서 엔진 정지 문제로 차량 130만대를 리콜 조치했다. 혼다는 지난 2월 이후 9개월만에 터진 타카타 에어백 결함으로 70대 차량을 리콜했다. 타카타 에어백은 금속파편이 튀어나와 전세계 2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 '죽음의 에어백'이라고 불리고 있다.

5일 미국자동차전문지 카스쿠프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2.0 가솔린 4기통 엔진을 장착한 포커스 차종 150만대다. 이 중 130만대는 미국에서 판매됐으며 나머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연간 100~200대 가량의 포커스가 판매됐지만 이번 리콜과는 무관하다.



혼다 파일럿

이번에 미국에서 리콜되는 포커스 차종의 경우 엔진 벨트가 열려 진공이 많아지게 되면 엔진 컨트롤 컴퓨터가 문제를 감지 못해 과도한 진공으로 엔진이 정지하고 가스탱크가 변형될 수 있어 충돌 위

험이 증가할 수 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는 "엔진정지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운전자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브랜드는 무상수리

로 이를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드 측에서는 해당 차량이 수리될 때까지 가스탱크를 최소 절반만 채워두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리콜은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된다.

혼다코리아는 조수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 내부 압력이 상승해 인플레이터 용기가 파손되거나 용기 파편으로 탑승객의 부상 우려가 있어 차량 70대를 리콜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리콜되는 차종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생산된 파일럿으로 조수석 에어백 인플레이터를 신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전한다. 지난 1일부터 시정에 들어갔다.

한편 혼다코리아는 지난 2월 해당 차종에 대해 같은 문제로 리콜을 진행했다. 당시 리콜이 진행된 모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된 파일럿 131대였다. /정영민 기자 yw964@